



타격감 살아난 KIA 최희섭 12월 결혼·군사훈련 앞뒤

내년 시즌 藥될까 毒될까

심리적 안정 '호재'...훈련 공백 '악재'

메이저리그 출신 좌타자 최희섭(28·KIA·사진)이 시즌 막판 '거포' 본능을 드러내며 내년시즌 대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2가지 변수가 있다. 오는 12월 예정된 결혼식과 병역면제에 따른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이 그것.

결혼에 따른 안정감과 군사훈련의 짐을 털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호재가 분명하지만, 길게는 2개월여간의 훈련공백이 내년 시즌 약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희섭은 지난달 30일 현재 최근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는 등 9월 한 달간 12경기에서 타율 0.432(44타수 19안타), 13타점으로 필름 날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선 홈런 3개를 터트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지난 5월 KIA에 입단한 최희섭은 출장 두 경기만에 갈비뼈 부상을 당한 뒤 고전했으나, 이후 유인구를 미국보다 많이 던지는 투수들의 볼 배합을 연구한 끝에 노림수가 좋아졌고 자신감이 커지면서 배트스피드도 빨라졌다.

올해 48경기에서 홈런 7개, 타율 0.328(186타수 61안타)를 기록중인 최희섭은 내년 시즌에는 심정수(삼성), 이대호(롯데), 김태균(한화) 등 각팀 간판타자들과 치열한 홈런왕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희섭은 시즌 후 마무리 훈련과 내년 초 전지훈련에서는 상체 위주의 스윙에서 벗어나 하체까지 이용하는 타격을 집중 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룰 수 없는 개인일정이 훈련의 걸림돌이다. 최희섭은 오는 12월 일본인 약혼녀 야스다 아야미와 한국과 일본에서 결혼식을 두 차례 치를 계획이고, 지난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진출로 받은 병역혜택에 따라 조만간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 일정 등이 예정돼 있다.

기초 군사훈련은 연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내년 시즌중에 훈련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커 경기감각이 흐트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KIA 관계자는 "최희섭의 올 겨울 최우선 훈련 목표는 체중감량인데, 타고난 큰 체격 탓에 훈련 기간을 길게 잡고 서서히 몸무게를 줄여야 부작용이 없다"며 "본인도 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만큼 개인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젤라 박 LPGA 신인왕

2년 연속·역대 여섯번째 한국인 수상 영예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19·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7 시즌 신인왕 수상자로 확정됐다.

1일(한국시간) 지난 나비스타 클래식에서 3위에 오른 안젤라 박은 신인왕 포인트 952점이 돼 남은 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2007 시즌 신인왕에 오르게 됐다. 특히 이날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만 10개를 뽑아내며 9인더파를 몰아쳐 신인왕 왕좌를 차지했다.

지난 시즌 이선화(21·CJ)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인이 LPGA 신인왕을 차지하게 됐고 역대 통산으로는 1998년 박세리(30·CJ), 1999년 김미현(30·KTF), 2001년 한희원(29·힐라코리아), 2004년 안시현(23) 등에 이어 여섯 번째 한국인 신인왕이다.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는 박경옥(56)씨와 이경란(51)씨 사이 3남1녀의 막내로 태어난 안젤라 박은 9살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건너가며 골프를 시작했다. 2월 하와이에서 열린 필즈오픈 3위를

하며 두각을 나타낸 안젤라 박은 이후 메이저대회인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5위, US여자오픈 공동 2위 등을 차지하며 투어 강자로 자리를 잡았다.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마다 브라질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안젤라 박은 현재 브라질 국적이지만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고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며 박혜인이라는 한국 이름도 갖고 있다.

올 시즌 성적은 상급 랭킹 11위, 71.6타로 평균 타수 9위, 버디 256개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 이어 2위 등 두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편 15일 삼성월드챔피언십을 마치고 코요롱-하나은행 챔피언십 출전자 16일 입국할 예정인 안젤라 박은 "한국에서는 처음 골프를 치게 돼 설렌다.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며 많은 응원을 부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동국 '골대 불운' 데뷔골 놓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4호 태극전사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또 골대에 막혀 정규리그 데뷔골 기회를 놓쳤다. 이동국은 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2007~2008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에버턴과 원정 경기에서 이집트 공격수 호삼 아메드 미도와 함께 투톱을 이뤄 선발 출전했다.

지난 달 27일 칼링컵 3라운드 토트넘전에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뛴 이동국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선 처음 스타팅 멤버로 출격했다. 제레미 알리아디에르 등 경쟁자들의 부상

으로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이동국은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다. 전반 25분 아쉬운 장면이 나왔다. 투루 영이 오른쪽 측면을 오버래핑으로 뚫고 들어가 넘어지며 크로스를 올렸고 불운 이동국 쪽을 향했다. 이동국은 골 지역 정면에서 경중 뛰어올라 헤딩슛을 날렸지만 불운 크로스바를 정통으로 맞고 나왔다. 한편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이동국에게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양팀을 불쌍히 여겨 4점을 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獨, 브라질 꺾고 우승

독일이 '삼바 아마조네스' 브라질을 누르고 2007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실비아 나이트 감독이 이끄는 독일은 지난 달 30일 밤 중국 상하이 흥커우(虹口)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서 후반 7분 비르기트 프린츠의 선제 결승골과 후반 41분 시모네 라우데르의 추가골로 브라질을 2-0으로 제압했다. 2003년 미국 대회에서 우승한 독일은 사상 처음 여자월드컵을 2회 연속 제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경수 공격 스파이크 1일 오후 경남 마산체육관에서 열린 2007KOVO컵 마산프로배구 리그 대 상무의 경기에서 리그 이경수가 상무의 3중 블로킹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스파이크를 시도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경주 막판 1승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대륙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골프대회 마지막 날 세계랭킹 10위 체면을 차렸다. 최경주는 1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로열몬트리올골프장에서 싱글매치플레이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미국팀 막내 헌터 메이헌에게 3홀차 완승을 거뒀다. 포블라 포섬 경기에서 승리없이 3패만을 안아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최경주는 폐막 직전에 위신을 되찾았다. 그러나 최경주의 1승은 세계연합팀의 다섯번째 패전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12경기 가운데 3경기만 이기면 우승을 확

정할 수 있었던 미국팀은 첫번째 주자로 나선 스콧 버플랭크가 로리 사바티니(남아공)를 2홀차로 꺾고 필 미켈슨이 대회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던 비제이 싱(피지)에게 5홀차의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쉽사리 우승컵을 확보하는 듯 했으나 세계연합팀의 거센 반격에 사달려야 했다.

어니 엘스(남아공)가 루카스 클로버를 2홀차로 이기고, 우승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됐던 타이거 우즈(미국)가 홈코스의 마이크 웨이(캐나다)에게 1홀차 패배를 당해 미국의 우승과리는 미뤄졌다.

하지만 8번째 주자 스텐트 시크가 닉 오헌(호주)에게 6홀차 대승을 거두면서 우승에 필요한 17.5점을 채워 미국팀은 우승을 확정지었다. 데이비드 톱스(미국)가 골이어 트레버 이벨만(남아공)을 상대로 2홀차 승리를 올려 왜기를 막았다.

- 2일(화) ▲NFL 뉴잉글랜드 신시내티(09:20·SBS스포츠) ▲KOVO컵 마산 프로배구 GS칼텍스 : 흥국생명(16:00·KBSN SPORTS)
3일(수) ▲UEFA 챔피언스리그 CSKA 모스크바 : 페네르바체(01:30), 맨체스터 Utd : AS 로마(03:30·MBC ESPN)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야쿠르트> (17:50·SBS스포츠)
▲프로야구 <SK : 삼성>(18:00·KBSN SPORTS·MBC ESPN)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Blessing' (작은만남 큰 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 Includes categories like '개업·성업 안내' (Opening/Business Announcement), '배복장터국밥', '엄마손실내포장마차', '바닷가', '출마트', '무진열쇠철물', '다이스', '한라상조(주)', '두꺼비게장백반', '토마토테라피', '장원식당', '365근로자대기소', '예술식당', '야행성짜장분식', '전주소주방', '미래부동산', '(주)송영엔틱', '우산골생고기', '생크닥터', '남강철학원', '강강슬래', '돈아돈아식당', '가로수꽃농원', '(주)한영금속광주-전남', '우정훈수방', '다도해유봉', '양촌리봉담', '화석시대', '청희진해물국수', '다미등뼈잡자랑', '장일종합카씨비스', '박하향해어샵', '햇살치킨', '월빙합인마트', '숨씨좋은이모네', '신정개발(주)', '(주)더플라이인크루즈'.